한·몽골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엥흐볼드 총리,

뎀베렐 상공회의소 회장, 발도르즈 경협 위원장,

손경식 회장과 김영훈 경협 위원장,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맞이할 몽골 건국 800주년 기념일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십 개 국가를 방문했지만 이번에 동행하는 경제인 숫자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순방을 갈 때 장관들도 함께 동행하는데, 이번에 가장 많은 숫자의 장관이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몽골 사이의 교역과 투자 규모에 비해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경제인이 함께 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몽골을 형제간처럼 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역사와 문화, 자연에 대해 상당한 신비감과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몽골에 와 보니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많은 기업인들이 몽골을 방문한 이유로는 적합치가 않습니다. 다들

바쁜 분들이고, 관광을 온 것은 아닐 테니 말입니다.

199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 후 꾸준히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더 증진하는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에 새롭게 합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양국의 관계는 긴밀히 발전해 왔고, 이것이 기업인들에게 몽골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판단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몽골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10.6%, 2005년에는 6%라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개발전략을 세우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인들에게 몽골에 가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경제인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질 것입니다. 몽골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큰 국가발전을 이뤄 갈 것입니다. 아울러 몽골 경제인에게도 한국 경제인을 잡아라, 나아가서는 한국을 잡으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8~19세기 식민지 경영으로 부를 축적해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경제를 일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성공시킨 최근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서 같이 한번 잘 살아 보자는 협력 의지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많은 돈은 없습니다. 돈은 많이 못 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성, 경험, 지식의 교류 등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자산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함께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관 사이에 16개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거나 체결될 것입니다.

몽골은 국토가 넓어 일거에 도로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기술·경제 흐름으로 봐서 물적 인프라보다는 정보통신이나 교육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바탕이 된 교육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것도 아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초고속 통신망으로 발전했지만, 이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수준의 무선 인터넷을 개발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비슷하나 조금 다른 것입니다. 몽골의 경우 넓은 국토라서 유선을 생략하고 바로 무선으로 가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 분야는 당장 이익을 얻는 아이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림부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조류독감·구제역 등 질병 퇴치를 지원하고, 기술을 협의하고, 산림녹화를 통한 환경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온 것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안될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한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개별적인 교역과 투자를 활발히 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기획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멀리 보고 갑시다. 정부도 멀리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몽골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설사 불법 체류자라 해도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두 가지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려면 기업으로부터 수요가 많아져야 합니다. 불법이 안되도

록 법을 관대하게 운영하려 하지만 기업이 원하지 않는 인력까지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득이한 규제는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